

서울시, 삼일대로 일대 역사·시민공간 조성



▲ 담장을 없애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될 천도교 중앙대교당 조감도. (사진: 서울시)

일제강점기 3·1운동의 무대였던 서울 삼일대로 일대가 의거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2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3·1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 안국역~탑골공원 구간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 3월1일 준공을 목표로 역사적 상징 가로로 꾸민다고 밝혔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해 연결할 7대 거점은 ●안국역 5번출구 앞 ●독립선언문 배부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서북학회 터 ●태화관 터 ●탑골공원 후문 광장 ●낙원상가 5층 옥상이다.

안국역 5번출구 앞은 3·1운동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타임라인 바닥판이 설치되며 독립선언문을 배부한터인 수운회관 앞에는 쉼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 제작과 보관·배부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담장을 없애 시민의 접근을 쉽게 하고 항일·민족계몽운동의 중심지였던 서북학회 터인 건국주차장에는 벤치와 100년 전 도시 모형을 만든다. 3·1운동의 진원지인 태화관 터 중 일부는 민족대표 33인을 기리는 '독립선언 33인 광장' (가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탑골공원 후문 광장은 3·1운동만세 물결을 상징하는 발자국 모양을 만들고 인근 보행길을 정비한다. 삼일대로와 태화관길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낙원상가 5층 옥상에는 인근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삼일대로 일대 시민공간 조성 사업의 기본·실시 설계를 이달 중 마치고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3·1시민공간 조성에 시민들이 자발적 기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 때문” ‘국가 배상’ 부상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일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 정밀조사단마저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정부가 포항지역에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고려대 이진한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논문인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일 가능성 평가'를 이날 게재했다.

사이언스는 세계 3대 과학 학술지 중 하나로 사이언스의 연구 논문 게재는 해당 논문이 관련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사이언스는 이와 함께 스위스 취리히공대 연구진이 지진자료와 인공 위성 레이더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해 포항지진이 유발 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시한 논문을 함께 실었다.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이라는 내용의 논문이 한꺼번에 2건이나 실린 것이다.

이진한 교수 연구팀은 지진학·지질학·지구물리학 증거를 종합해 지난해 지진은 지열발전소에서 땅 아래로 물을 주입해 발생한 유발지진

(사람이 일으킨 지진)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과학적 근거로 ●발전소 물 주입 시점과 지진발생이 대부분 일치했고 ●지진 진앙이 물 주입 지점 근처에 몰려있으며 ●진원의 깊이가 자연지진보다 얇고, 물 주입 깊이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물 주입 지점 근처에 단층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또 다른 유발지진 근거로 진앙 인근의 지진 발생 횟수를 들었다. 연구팀은 2006~2015년 사이에 포항지진 진앙 반경 10km 안에서는 단 6차례의 미소지진(규모 1.2~1.9)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열발전 건설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두 개의 관정을 뚫고 물을 4차례 주입한 뒤에는 미소지진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포항지진 전까지 2년간은 150차례나 관측됐다. 2017년 4월 15일에는 규모 3.1의 지진도 발생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외 석학 14명으로 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연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조사단마저 같은 결론을 낼 경우 정부는 재산적 피해와 시민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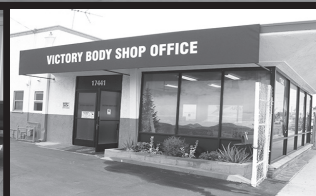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